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산농가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 악취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농가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역 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에 배포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 지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과 정확한 해결방안을 진단하는 데 농가 스스로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농장 유형별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관리지침서를 마련해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관리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백산면, 영농철 농촌일손 돕기 '구슬땀'

부안군 백산면사무소와 건설교통과 30여명은 25일 바쁜 영농철을 맞아 백산면 대죽마을(농가 마늘밭에서 마늘종축기 농촌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는 마늘 수확기를 맞았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진행 하였다.

특히 마늘 수확작업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경에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직원들은 바쁜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일손을 도와, 일손부족과 최근 몇 년간 재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농가에 보탬이 되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생산이 농민의 땀과 노력의 결과임을 느끼고 감사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농가주는 무더운 날씨에도 부안군 직원들의 농촌 일손돕기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안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감사사를 표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 추진

정읍시, 축제 입장권 소지 외부 관광객... 도심 상가 할인 혜택 제공

정읍시가 지역의 대표 향기 축제인 구절초·단풍·리벤더 축제 입장권을 소지한 외부 관광객에게 올해부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읍시와 구도심 상권 상가협회의는 구절초와 단풍, 리벤더 축제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 도심 상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입장권을 제시하는 외부 관광객들은 지역 내 식당, 의류매장, 이·미용실 등의 상점을 5~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혜택에는 '샘고을시장상회', '중앙상가발전협의회', '재암길상인번영회', '우암로번영회' 등이 참여한다. 참여 단체들은 정읍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도심 상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가지로 유인해 관광 소비를 촉진,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관광객이 정읍의 '맛'과 '멋'과 '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심 상권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해 행사장에 비치하고 축제 관람객이 관련 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 시내 숙박업소와 레저문화 시설 등을 계속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할인 내용과 대상 시설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축제 행사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향기 축제에 따른 분석 결과, 외부 방문객들의 도심 상권 유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올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한우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 “명품 한우 산지로서 입지를”

고창군, 한우개량·품질고급화로 명품한우 육성 나서

고창군이 올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한우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13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앞서 고창군은 한우 개량의 기본인 우량 정액 지원과 수정란 이식, 등록 및 선형심사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고창산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이 2016년 68%에서 지난해 77.7%로 꾸준히 향상되면서 지역내 한우 사육농가의 자긍심 향상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씨수소 중심의 개량체계에서 암소를 개량하는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암소축군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우수한 혈통이 보전·유전되도록 암소 개량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한우헬퍼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청 박동열 축산진흥팀장은 "국의 상황에 따른 사료비 상승, 적정 한우 사육두수 초과 및 수입 관세 철폐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우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만이 한우 농가 및 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며 "명품 한우 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농식품부 주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 착수보고회 열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침체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과 시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과 수행 일정을 공유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방향, 사업별·단계별 세부 수행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업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을 기획·발굴하는 민간 주도형 국가 공모사업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향기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광역·기초의원 출마입지자들 이학수 시장 후보 지지 선언

이번 6.1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입지자 11명이 정읍시장선거에 출마한 이학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25일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지지하면서 그 가치를 정읍 정치를 통해 구현해 보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대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동안 몸담아 왔던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며, "정읍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원으로서 이학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공개까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선당후사 자세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학수 후보를 지지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선언 소식을 접한 이학수 후보는 "오랜기간 당내에서 함께 했던 동료 지지자들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로 땀땀 뭉쳐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측은 사전투표 전날인 26일 오후 5시 30분, 정읍여고 앞에서 김관영 도지사 후보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합동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주간 행사 성료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난 16~20일 진행한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주간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고창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년상생관'으로 탈바꿈할 '조양판'(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325호), 삼양염업사 해리지점, 검단소금전시관 등을 찾아 문화거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문화예술계 사무국장단, 고창문화원 사무국장 등 지역문화예술인, 전문가들과 문화관광자원지원 활용 진단과 처방, '고창 문화예술인안 전망 구축 방안',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문화도시' 등의 주제로 고창문화현안 진단세미나를 열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 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과정을 결산하는 '컬처



체인 성과공유 간담회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설정한 센터장은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가 치유 문화도시 고창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도시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도시를 빚어가는 데 지역문화예술계가 함께 손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